

## 텔레비전의 혁신 : 컬러 방송과 민주화, 다양한 볼거리

윤 상 길

신한대학교 언론학과

일반 시청자의 관점에서 볼 때, 1970년대와 그 이후를 가르는 분기점은 바로 텔레비전의 기술적·제도적·문화적 혁신에 있었다. 텔레비전의 기술적·제도적·문화적 혁신 중에서도 특히 텔레비전 기술의 컬러화와 정치적 민주화에 따른 제도적 변화는 볼거리로서의 텔레비전을 문화적으로 변화시켰던 주요 요인이었다. 이중 시청자가 가시적으로 가장 실감할 수 있었던 텔레비전의 컬러화는 역설적이게도 유신체제의 붕괴라는 정치적 격변의 틈바구니 속에서 등장하였다.

1970년대를 국가권력의 자의적 남용과 권위주의적 일방통치로 얼룩지게 했던 유신체제는 10·26 사건으로 인해 돌연 붕괴되었다. 유신체제 붕괴 직후의 상황은 어느 세력도 국가권력의 핵심을 장악하지 못한 유동적 상태에 있었다. 유신체제의 붕괴가 절대적이던 국가권력 핵심의 내적 균열이라는 형식으로 이뤄짐에 따라 국가권력 내부의 어느 분과도 권력을 완전히 장악할 준비를 갖추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반유신 연합세력 역시 집권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심한 내부 분열에 빠졌다. 이와 같은 교착상태를 깨뜨린 것이 신군부의 쿠데타였다.<sup>1)</sup>

이러한 신군부의 권력 장악은 이전의 두 단계의 장악과정을 거쳐 완성된 것이었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12·12 사태였고, 두 번째가 소위 ‘K-공작계획’(K는 King의 약어)이라고 일컬어지는 언론대책반의 언론장악이다. 1980년 3월 24일에 이상재의 언론대책반은 계열사의 언론검열단을 사실상 지휘하면서 3김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활동과 학생들의 시위를 부정적으로 보도케 하는 한편, 전두환 장군의 미화에 힘을 쏟았다. 이후에 진행된 모든 언론관련 조치들, 즉 5월 17일 비상계엄전국확대와 함께 진행된(언론계 저항의 실질적인 축과 구심점이었던) 기자회견 집행부에 대한 강제연행과 8월에 진행된 언론인 강제해직, 그리고 12월의 언론통폐합은 모두 ‘K-공작계획’의 후속조치였다.<sup>2)</sup> 1980년대 신군부의 언론인 강제해직과 언론통폐합은 모두 계엄령 하에 취해진 조치였기 때문에, ‘언론의 반발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판<sup>3)</sup>을 마련할 뿐 아니라 언론통폐합의 강압조치를 사후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하여 전두환 정권은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47호로 언론기본법을 제정하였다.

### 1 신군부의 등장에서 다채널 다매체로

#### 1) 방송통폐합의 파장

1980년 12월 1일 방송통폐합 결과, 기존의 민영 방송을 폐지하고 공영방송 체제로 바꾸어, KBS와 MBC 두 채널만 남게 하였는데, 이에 따라 기존의 동양방송과 동아방송은 한국방송공사에 통합되었다. 그리고 문화방송은 경향신문과 분리되는 한편, 당시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던 지방의 제휴사 21개사의 주식 51%를 인수하여 그들을 계열사화했다. 또한 KBS를 MBC의 대주주로 만들으로써 KBS가 MBC를 경영하게 되었다. 그 밖에도 기독교방송(CBS)의 보도기능이 금지되었고 이에 따라 CBS는 11월 24일 보도방송을 중단하고 복음 방송만 하게 되었다.<sup>4)</sup> 이때 고별뉴스를 진행하던 아나운서가 울먹이는 바람에, 동양방송과 동아방송의 고별방송에 대해선 별도의 지침이 하달되기도 하였다.

방송사	개편내용
KBS	TBC-TV, TBC라디오를 흡수 <p>DBS, 전일방송, 서해방송, 대구FM을 흡수 <p>MBC의 주식 65% 인수</p></p>
DBS	KBS에 흡수됨
TBC	KBS에 흡수됨
MBC	21개 지방사(부산문화, 부산문화TV, 춘천, 원주, 강릉, 삼척, 청주, 충주, 대전, 대구, 포항, 안동, 울산, 마산, 마산TV, 진주,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남양)의 주식 51%를 소유주로부터 인수, 지방망을 계열화
CBS	보도기능 없애고 복음방송만 전담케 함

 [표 1] 1980년대 방송통폐합 현황<sup>5)</sup>

이러한 1980년 12월의 방송통폐합 결과를 KBS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은데, 특히 KBS는 MBC의 주식 70%, 서울신문의 주식 99.4%, 연합통신의 주식 42.4%를 소유하게 되었는데, 따라서 KBS를 축으로 하여 MBC, 연합통신, 서울신문, 경향신문,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완전히 장악했다.<sup>6)</sup>

#### 2) 방송민주화

1987년 6월 10일 오후 9시, KBS 뉴스는 ‘민정당 대통령 후보 노태우 대표 선출’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시작됐다. 현직 대통령 임기 중 집권여당이 차기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40년 헌정 사상 최초임을 강조하면서 “잠엄하고도 열기 있는 분위기”와 “감격과 성원으로 절정을 이뤘다”고 보도했다. 이어서 노태우 후

구 명칭	신 명칭
KBS-TV	KBS 제1TV
TBC-TV	KBS 제3TV
교육텔레비전(UHF)	KBS 제3TV
KBS 제1방송	KBS 라디오 제1방송
KBS 제2방송	KBS 라디오 제2방송
동양라디오(TBC)	KBS 라디오 제3방송
동아방송(DBS)	KBS 라디오 제4방송(라디오서울)
KBS-FM	KBS-FM 제1방송
TBC-FM	KBS-FM 제2방송
한국FM(대구BBC)	KBS 대구FM
全日放送(광주)	KBS 광주 제2방송
西海放送(군산)	KBS 군산방송

 [표 2] 통합 KBS의 명칭 변경 내용<sup>7)</sup>

보의 인물 됴됨이와 성장과정, 주변 사람들의 호의적인 평가까지 모두 다섯 쪽지를 25분 동안 다뤘다. 집중 보도의 결론은 이날의 전당대회가 “우리나라 민주 정치 발전에 결정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전두환 대통령의 정치철학이 현실화되는 … 정치발전의 한 순간”이라는 것이었다.<sup>8)</sup>

그러나 이날의 뉴스에서 정작 한국사회 민주화의 결정적 순간으로 역사가 기억할 장면은 불과 4분간 압축적으로 보도된 “박종철군 사건 규탄과 호헌철폐 집회” 및 “산발적인 시위”였다. 이날부터 시위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연세대생 이한열의 ‘민주국민장’이 열린 7월 9일까지 한 달 동안 한국사회는 지속적이고 격렬한 국민적 민주화 항쟁을 벌였고, 억압적 권위주의 체제였던 제5공화국은 본격적으로 막을 내리기 시작했다.<sup>9)</sup>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로 직선제 개헌안이 확정되었다. 11월에는 정기국회에서 언론기본법을 폐지하고 정기간행물 등록법과 방송법을 새로 제정했으며, 한국방송공사법을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방송법의 제정 대신에 ‘공정방송관리를 위한 임시조치 법률안’을 제시했다. 언론기본법은 당연히 즉각 폐지되어야 하나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는 촉박한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대체입법이 빠른 시일 내에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국회 문공위에서 여당 법안을 골간으로 하는 수정안이 만들어졌고,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sup>10)</sup>

언론기본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된 방송법은 본문 45개 조와 부칙 4개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문의 대부분은 언론기본법의 제5장 방송에 관한 내용들을 그대로 옮긴 것이었다. 언론기

본법에서 가장 문제시되었던 것은 정기간행물과 방송 모두를 규정하는 제6조의 언론청구권과 제7조의 위법 표현물의 압수 및 제8조의 취재원 보호에 관한 조항이었고, 이는 언론기본법과 함께 폐지되었다. 새 방송법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의 언론기본법에서 단순 심의기구의 역할에 그쳤던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확대한 것이다. 또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방송사의 이사 추천권과 결산 공표권도 부여했다. 그리고 한국방송공사법의 전면 개정과 함께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권을 행정부처(문공부) 장관으로부터 방송위원회가 추천한 이사회로 이양하였다.<sup>11)</sup>

### 3) 다채널 다매체의 시대

1987년 방송법의 제정은 이른바 방송 민주화의 흐름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영방송의 형식적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반면, 1990년 8월 1일의 민영상업방송의 신설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에서는 방송 민주화와 공정성과 같은 명분 대신에 ‘방송환경의 변화’라는 새로운 근거가 제시되었는데, 이로써 민영상업방송의 허용을 통한 공·민영 방송체제가 도입되었다. 정부는 방송환경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존의 KBS와 MBC의 공영방송만으로는 시청자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방송을 독점하고 있는 KBS와 MBC의 무사안일과 방만한 경영으로 방송의 질적 향상이 미흡하기에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KBS의 〈라디오 서울〉 채널을 새로 도입되는 민영상업방송에 맡기고, KBS 3TV와 2라디오 및 교육FM은 문교부가 운영하고 교육개발원이 제작을 담당하는 별도의 교육방송(EBS)로 분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KBS는 기존의 3개 TV채널 및 8개 라디오채널에서 2개 TV채널·4개 라디오채널로 축소 조정됐다.<sup>12)</sup>

1991년 3월 30일 SBS 개국이후 KBS, MBC 양사의 독점시대는 막을 내렸다. 새롭게 등장한 SBS는 수도권중심의 지역민영방송이지만 다른 지역민영방송과 제휴를 통해서 전국네트워크 채널로 성장하였다. SBS는 오락 프로그램과 드라마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빠르게 발전하였지만, 지나친 상업화를 추구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SBS의 성공을 견인한 것은 드라마 〈모래시계〉(1995)였다. 제5공화국출범시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 이 드라마는 ‘모래시계 = 귀가시계’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였다. 이후 경남 부산방송(KNN)과 광주방송(KBC), 대구방송(TBC), 대전방송(TJB)가 1995년 5월 14일 개국했고, 울산민방(UBC)이 1997년 9월 1일, 전주방송(JTV)이 1997년 9월 27일, 청주방송(CJB)이 1997년 10월 18일 개국했으며, 강원민방(GTB, G1으로 개칭)이

2001년 12월 15일, 제주민방(JIBS)이 2002년 5월 31일 개국하였다. 그 밖에도 TBS교통방송, 불교방송 등의 개국이 있었다.

한편, 1995년 케이블 방송의 등장으로, 지역별로 100여개의 다양한 채널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 한국 방송계는 본격적으로 다채널 다매체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1999년 발사 성공한 최첨단 대형위성인 ‘무궁화 위성 3호’의 중계기를 이용한 시험방송이 실시되었고, 디지털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2002년 3월 5일에 개국하였다.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인 IPTV는 2006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IPTV시범사업에 이어, 2007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방송통신융합추진지원단이 IPTV 도입을 위한 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법안을 제출한 끝에, 2009년 정식 서비스에 들어갔다.

## 2 천연색으로 볼 수 있게 된 텔레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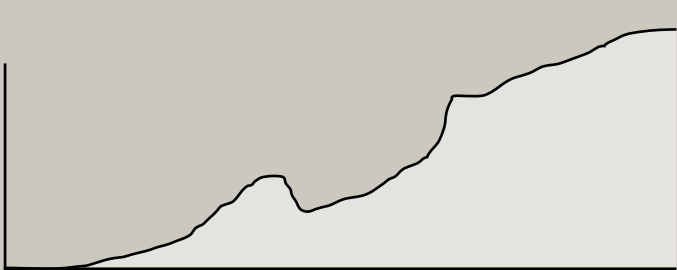
### 1) 컬러 텔레비전 방송의 시작

방송통폐합과 같은 제도적 차원의 억압적 통제와는 달리 사회적으로는 1982년에는 두발 및 교복자율화, 통행금지 폐지 등의 조치가 있었고, 방송계에서는 컬러 텔레비전 도입, 아침방송 재개(1981)가 있었다. 컬러 텔레비전 방송은 1980년 12월 1일부터 KBS에서 하루 세 시간씩 시험방송을 시작하였고, 12월 22일에는 KBS 1,2방송과 MBC도 컬러 방송을 개시하였다.

공식적인 한국 컬러 텔레비전 방송 도입은 1980년 12월 1일 KBS-TV가 시험전파를 발사함으로써 시작되었지만, 텔레비전 방송의 컬러화는 사실상 그 이전 시기동안의 장비·시설의 컬러화, 기술자의 훈련 등이 축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sup>13)</sup> 전자업계와 상공부에서는 컬러 텔레비전의 조기방송을 1972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는데, 이는 당시 미국과 일본 간의 무역마찰로 인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실시되고 있어 한국제품이 국제 컬러TV수상기 시장에 진출할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문화공보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는데, 주요 이유로는 사업자본으로부터의 방송사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와 함께, 컬러TV시청료 인상과 수상기 값이 상승이 가져올 당시 공보매체로서의 TV보급 지연을 우려했기 때문이다.<sup>14)</sup>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은 컬러텔레비전 조기방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었다. 박정희는 이미 1975년 10월 8일 한국전자 박람회 개막식에서 전자회사 사장들을 앞에 놓고 컬러 텔레비전은 아직

시기가 이르다고 강조하였다.<sup>15)</sup>

1970년대 컬러 텔레비전의 조기방영은 상공부와 전자업계의 끈질긴 제기에도 불구하고 경제 외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좌절되었지만, KBS를 비롯한 방송사들은 숨죽여 조용히 컬러 방송을 대비하여 기술 연구와 함께 장비를 도입하였으며, 1980년 12월 컬러방송 개시 이후에도 신속히 대비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우선 컬러방송 개시 직후, KBS는 1983년까지 색상안정화에 역점을 두었다. TV 제작기술분야에서 컬러 색상 초기 정착을 위하여 카메라의 기본 조정용 패턴을 통일하고 스킨톤(skin tone)의 기준과 카메라 컬러 조정 기준을 설정, 실시하였다. 또한 KBS는 컬러방송 실시 이후 컬러방송 장비의 부족에 따른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장비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부족 장비를 보완하고 프로그램 품질향상을 기하고자 하였다. 1982년에 KBS는 제작기술을 현대화하기 위한 방송장비의 보강분야에서도 과감한 투자를 하였는데, 차관사업으로 취재장비와 중계방송 등 대폭적인 보강사업이 이뤄졌고, 전국 乙地방송국까지도 ENG카메라를 배정하여 보도취재의 다양성을 부여함으로써 뉴스 취재원의 폭을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컬러중계차를 도입(11대)하여 본사 및 지방감지국에 배정, 각종 중계프로의 다윈 및 다단 중계방송을 실시하였다. 그 밖에도 지상과 공중을 연결하여 해상에서도 이동중계 가능한 입체방송용의 헬리콥터를 국내 방송국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하여 1983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였다.<sup>16)</sup>


 그림1) 텔레비전 수상기 보급 추이(1963-2006)<sup>17)</sup>
비고) 1982-1984년은 흑백+컬러수상기(컬러 수상기, 1982-230만대, 1983-318만대, 1984-418만대)

컬러 텔레비전 방송의 개시와 함께, TV수상기도 서서히 흑백 TV수상기에서 컬러TV수상기로 급속히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컬러TV수상기 보급대수는 1982년 230만대, 1983년 318만대, 1984년 418만대로 증가하였는데, 1956년 한국에서 처음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된 이후 TV수상기가 600만대에 이르기까지 25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던 비해, 컬러TV수상기는 약 7~8년의 기간이 소요될 뿐이었다. 이렇게 단기간 내에 컬러TV수상기가 빨리 보급될 수

있었던 것은 1970년대 초반부터 국내 기업들에 의해 수출용 컬러 TV가 생산되고 있었다는 점이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특별소비세 인하를 통해 보급 확대를 유도하였기 때문이었다.<sup>18)</sup>

### 2) 컬러로 제작되는 프로그램

근면, 절약을 정책으로 하는 유신정권 하에서의 방송과 달리, 텔레비전의 컬러화는 화려한 색상과 울동을 담고 있는 쇼 프로그램에 일대혁신을 가져왔다. KBS (100분쇼)는 텔레비전 컬러화에 따른 기획과 구성으로 프로그램의 대형화를 추구하는 한편, 생방송 시도로 새롭고 혁신적인 TV쇼를 개척하였다. KBS의 (젊음의 행진), MBC의 (쇼2000) 등도 컬러화가 낳은 대표적인 쇼 프로그램이었다. 한편, 텔레비전방송의 컬러화는 1981년 봄 모든 TV광고의 컬러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 3 공영방송의 역할

### 1) 난시청해소사업

‘텔레비전의 컬러화’라는 방송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방송망 확장계획에 대한 수정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1980년 형식적이거나 KBS와 MBC가 공영방송체제로 개편된 이후 가장 중점을 두어 온 것 중의 하나가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방송망확장사업이었기 때문이다. 방송공영화 이전에는 정부가 민간방송의 시청취지역 확대를 장기간 동안 동결시켜 왔기 때문에 MBC의 기시청권은 국토의 43%, 인구의 60%에 그치고 있었으며 강원도와 충북지역은 도 전역이 MBC의 불가시청 지역이거나, 기존 시청취 가능지역도 출력이 약해 컬러방송의 수신상태가 불량한 실정이었다.<sup>19)</sup>

이에 따라 통합조치 이전의 상황에서 수립된 제2차 난시청 해소 4개년 계획(1979~1982)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거쳐, 정부는 당초의 사업을 2차년도인 1980년에 종결시키고 새로운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방송망 확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추진하였다. ‘방송망 확장 종합계획’의 기본 방향 중 텔레비전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KBS의 TV 전국방송망을 기간 종합방송망으로 삼고, 종합편성 내용으로 국민여론을 선도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며, 잔존하는 난시청지역에 대해서는 일소될 때까지 난시청 해소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2) 종전 TBC계열의 TV방송망을 제2종합방송망으로 하여 서민 위주의 건전한 오락방송으로 편성, 운영하며, 가시청권 확장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중소도시를 고루 포함하는 준(準) 전국방송망을 구성한다. 3) 기존 FM 및 UHF-TV에 의한 교



육방송망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수신이 가능하도록 난시청 해소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전국민이 균등한 방송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sup>20)</sup>

이와 같이 KBS는 ‘제1차 난시청 대책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로서의 방송전파 분포실태를 3차(1983~1985년)에 걸쳐 조사함으로써, 다음의 [표 3]과 같이 국내의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FM방송 등의 전파분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였는데, 1985년말 당시 KBS-TV의 인구대비 가시청율은 대체로 90% 정도에 달하게 되었다.<sup>21)</sup>

매체별	시설수			인구대비
	기간국	중계소	계	가시청율
KBS1TV	31	325	356	96.7%
KBS2TV	25	58	83	89.3%
KBS3TV	26	130	165	91.4%
계	82	522	604	

[표 3] 1985년 말 KBS-TV의 가시청 현황

## 2) 방송을 통한 교육

방송을 통한 교육은 6·25 전쟁 중에 시작되었다. 문교부는 「전시하 교육특별조치」를 공포하고 모든 학교에 교육에 관한 정보와 지시를 라디오를 통하여 전달하는 ‘라디오 학교’가 시작되었다. 라디오 학교의 내용과 출연자 선정은 문교부가 맡았고, 서울 중앙방송국이 제작과 송출을 담당했다. 1963년부터는 라디오 학교방송을 중앙시청각교육원이 기획, 편성, 제작하였고, KBS가 송출을 담당했다. 1966년에는 KBS-TV가 중앙시청각교육원에 ‘TV 여름학교’ 방송을 의뢰하는 실험방송을 하였고, 1969년에는 매일 1시간씩 텔레비전 학교방송을 실시했고, 1972년 12월 30일에 중단되었다.<sup>22)</sup>

한편, 1974년부터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 텔레비전 방송을 컬러로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1975년 3월에 우면산 기슭에 지상 5층의 건물을 완공하고, 8월에 FM라디오와 컬러TV방송용 기자재를 설치완료하기도 하였다. 방송시설과 기자재 값으로만 11억이 든 이 사업은 전국 학교 가운데 3분의 2가 볼 수 있는 지역에 UHF로 컬러방송을 내보내어 750만명의 학생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 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미국 웨스팅하우스社가 개발한 ‘티콤’(T-COM) 장치 - 기구(氣球)에 의한 송신장치 - 가 말뚝을 부러 실패로 돌아갔다.<sup>23)</sup>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한국 교육 텔레비전 방송이 정식으로

출범한 것은 1981년 2월 2일 한국 교육개발원과 KBS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 KBS방송망을 통해 방송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80년 7월 30일 ‘교육개혁 조치’에 따라 과외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었고, 1981년에는 KBS 3TV 교육방송이 개국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과 KBS에서 제작한 프로그램들이 KBS방송망(UHF-TV)을 통해 방송되었다. 1990년에는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취지로 한국교육개발원 부설 교육방송(EBS)이 개국하였다. 1997년에는 한국교육방송원을 창립함으로써 독립적인 방송기관이 되었다. 같은 해 8월 위성교육방송(위성 1·2TV)을 시작하였으며, 2000년 6월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창립하였고, 12월부터 인터넷 교육방송을 시작하였다. 2001년 11월 디지털TV 방송국을 개국한 데 이어 2002년 3월부터 EBS TV와 위성1·2 TV의 후신인 플러스1·2 채널을 스카이라이프를 통하여 방송하고 있다.

## 3) 분단국가의 이벤트 :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본격적인 텔레비전 방송 시대를 상징적으로 증명한 프로그램은 KBS에서 진행한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이다. 이 프로그램은 텔레비전의 탁월한 문제해결능력을 통해 분단된 국가의 비극을 사실적으로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sup>24)</sup> 1983년 6월 30일부터 138일 동안 총 453시간 45분 간 방영된 이 프로그램은 분단국가의 현실을 보여준 감동적인 방송이었고, 이산가족 소개를 한 출연 인원은 5만 3162명이었다.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프로그램은 아침 8시대에 방송되던 여성대상 프로그램인 〈스튜디오 830〉이 마련한 6·25 동란 연속기획 시리즈에서 발전된 것으로서, KBS서울 본사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강릉의 9개 지방국과도 연결되어 지방에서 방송을 보고 나타난 가족들을 TV를 통해 상면시켰는데, 실로 TV의 특성과 KBS네트워크의 위력이 30여년 동안이나 미결로 남겼던 이산가족 문제를 푸는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게 한 것이었다.
각계 각층, 그리고 국내 일간지들이 일제히 이산가족찾기 방송을 대서특필하고 세계 4대 통신사들이 서울발 기사로 이 소식을 전세계에 타전함에 따라, 이 방송은 KBS의 것만이 아닌 세계 인류의 관심사로 등장하기 시작했다.<sup>25)</sup>

이에 따라 이 방송은 7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KBS 제1라디오로 동시방송되기도 하였고, 방송이 장기화되면서 방송된 내용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신청이 쇄도함에 따라 KBS본사와 지방국 사옥에 각 10여대의 TV수상기를 설치하여 VTR재생을 시작했

다. 또한 위성중계방송을 활용하여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생방송을 7월 10일부터 실시하기도 하였다.<sup>26)</sup>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KBS의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거국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7월 8일자로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7월 9일부터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한편, 각계 각층의 지원이 잇달아 서울시는 여의도 광장에 이산가족들의 이산사유를 적은 벽보를 붙일 수 있는 입간판식 벽보판 100조를 설치하거나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주요 단체들의 자원봉사가 끊이지 않았다.<sup>27)</sup>

## 4 정권홍보에서 민주화의 수단, 그리고 사회비판의 통로로

### 1) 정권 홍보 매체로서의 TV

1980년 방송통폐합에 따라 공영제가 실시되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변화된 장르 중의 하나는 보도프로그램, 곧 뉴스였다. 특히 (KBS 9시 뉴스)가 대표적인 예였다. 1980년대 KBS 1TV 9시 뉴스는 신호음이 나간 뒤 “오늘 전두환 대통령은…”으로 시작하는 홍보방송으로 시작하였는데, 이 때문에 ‘땡전 뉴스’의 오명을 얻기도 하였다.

보도 프로그램의 변화는 양적인 면에서도 명백하게 확인된다. 1971년 개국당시 보도프로그램이 9.6%에 불과하던 MBC는 시간대 편성지침이 작용한 1977년이 되면 12.9%로 3.4% 정도가 증가했고, 공영제가 되는 1982년에 이르면 17.5%로 4.6%가 증가하고 1986년에는 무려 25.1%로 7.7%가 더 증가하였다. 이 점은 축적 규모가 커지고 노하우가 쌓이면서 정보제공이라는 방송의 본연적 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시작했다는 발전적 측면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공영제가 가진 제도적 힘과 방송을 ‘공적 기구’화한 국가의 방송이용 의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프로그램의 발전은 질적인 면에서도 이루어지는데, ENG 카메라의 활용, 현장제작방식의 정착, 앵커시스템의 도입 등은 정보 매체로서의 텔레비전을 보다 확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땡전뉴스와 보도지침으로 대표되는 전두환 정권의 인위적 정당성 창출작업과 결코 분리될 수 없었다.<sup>28)</sup>

또한 공영제가 실시되면서 실질적으로 크게 변화된 양상 중의 하나는 대형 프로그램의 등장이었다. 1981년도 언론기본법에 의해 명시된 기본 편성지침에 의한 1981년 3월 MBC의 개편은 개국 이래 최대의 것이었다. 개편의 내용은 한 마디로 ‘프로그램의 대형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sup>29)</sup> 또한 1981년판 《한국신문방송연감》에는 KBS가 향유할 수 있는 방송통폐합의 효과 중의 하

나로서, 대형 프로그램의 기획이 수월해지고 방송목표를 훨씬 효과적으로 추진력 있게 행사할 수 있게 한다고 지적하면서, ‘國風 81’을 좋은 예로 들고 있다.<sup>30)</sup> ‘國風81’은 민족문화의 주체성을 고취하고 우리 국학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문화축제였지만, 한편으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1주기를 앞두고 군사정권에 대한 학원가의 저항을 약화시키는 의도가 있었다.

### 2) 시청자 운동과 방송민주화

1980년 방송통폐합을 통해 정치권력이 줄곧 외쳐온 공영방송의 이념과 원칙은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준비가 없었던 까닭에 다분히 ‘빈’ 이념과 원칙에 불과했다. 때문에 1980년대 공영방송의 이론과 현실 간의 간극은 매우 컸는데, 이러한 간극을 보여줄 수 있는 수많은 사례들은 시청자가 바라보는 텔레비전 브라운관 배후에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어서 쉽게 시청자들이 깨달을 수 없었지만, 그러한 배후구조의 현현물(顯現物)로서 시청자들이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프로그램의 편파성은 1985년부터 본격화된 ‘KBS-TV 시청료거부운동’이라고 하는 (잠재적/현재적) 시민사회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sup>31)</sup>

KBS 프로그램에 대한 편파성에 대하여 시청료 거부 움직임으로 최초로 도전한 사람들은 농민계층이었다. 적어도 1982년 경부터 호남지역에서는 이미 농촌 지도자 모임이나 교육시간에 KBS-TV의 보도 자세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하였고, 전남 강진과 무안, 함평, 구례를 비롯하여 전북의 부안, 임실, 고창, 완주, 김제 등에서부터 시청료 거부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984년 4월 28일 천주교 전주교구 고산 천주교회와 한국가톨릭 농민회 전주교구 연합회는 “TV시청료는 민정당과 정부만 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청료 거부운동은 좀더 조직화되었다.<sup>32)</sup>

1985년 12대 2·12총선은 TV선거방송의 원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때 하달된 선거방송지침은 ‘여당 후보를 부각시키고 야당 후보를 축소보도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1985년 2월 11일 (특집방송-한표의 결단)에서는 12대 총선 편파·왜곡방송이 절정을 이루었다. 집권여당의 다수 의석 확보만이 안정된 성장을 기약할 수 있다는 인터뷰와 대통령의 선거공약, 북한의 남침위협 등 다양하고 노골적인 내용을 통해 편파, 왜곡 방송이 자행되었다. 그리고도 무언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KBS가 착안한 것이 드라마 편성이었다. 거부감 없이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며 정부의 시책을 하달할 수 있는 것이 바

로 드라마였기 때문에, 15편에 걸쳐 선거용 홍보드라마를 제작하였다. 이 홍보드라마의 대부분은 야당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었고, 이 같은 드라마의 편파방송은 당시 시청자들의 거센 반발과 비난을 초래했다.<sup>33)</sup> 1986년 4월 5일자 신문에 실린 어느 한 시청자의 논평은 당시 일반 국민들이 KBS방송에 대해 어떠한 감정을 가졌는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

“KBS-TV뉴스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시청자로서 무시받고 우롱당하고 있는 불쾌감이다. 시청자를 무슨 계도대상집단 정도로 여기면서 세뇌교육을 하듯 일방적으로 편파적인 뉴스를 전달하는 보도제작 태도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조차 들기도 한다.”<sup>34)</sup>

이러한 KBS-TV의 편파방송을 계기로, 1982년부터 1985년까지 산발적이고 소규모로 전개되었던 농민들의 TV시청료거부운동에 1985년 중반부터 재야운동단체들이 호응함으로써, 시청료거부운동은 전국적 운동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 운동은 KBS를 중심으로 하는 미디어체제 전반에 대한 국민의 거부운동이자 정치적 민주화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공영방송을 뒷받침한 당시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운동으로서, 1987년 6월 항쟁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언론노조운동이나 시민언론운동의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sup>35)</sup>

6월 항쟁 이후 1987년 12월에 MBC가 노동조합을 창립하였고, 이어서 다음 해 5월에는 KBS도 노조를 설립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 근대 언론이 시작된 지 100여년이 지난 1987년에야 비로소 합법적인 언론사 노동조합이 최초로 결성된 것이었다. 이는 방송법과 제도의 측면에서도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었는데, 1970년대의 ‘동아투위’와 같은 지사적 저널리스트들을 중심으로 한 낭만적인 수준에서의 자유언론 쟁취 노력의 단계를 넘어 서서 방송(언론) 종사자들이 조직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이다.<sup>36)</sup>

### 3) TV의 사회고발과 사회비판

1980년대 들어서면서 ENG 카메라의 활용, 현장제작방식의 정착, 앵커시스템의 도입 등과 같은 뉴스프로그램의 발전과 더불어, 본격적인 사회고발, 사회비판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1983년 KBS 2TV는〔추적 60분〕에서 ENG카메라를 활용한 과감한 영상처리를 하였고, 사회병리현상 노출시켰으며, 1986년〔유머1번지-회장님 우리 회장님〕으로 정치 풍자 코미디를 개시하였다. 1980년대 말부터는 방송을 통해 자유롭게 사회를 이

야기하기 시작했는데,〔시사토론 프로그램 ‘심야토론 전화를 받습니다’〕(KBS, 1987), 국회청문회 TV중계 (국회광주민주항쟁진상특위청문회)(1988),〔광주는 말한다〕(KBS, 1989),〔어머니의 노래〕(MBC, 1989)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질 높은 시사 다큐멘타리의 방영도 이뤄지게 되었다. MBC의〔이제는 말할 수 있다〕(1999-2005)와 KBS의〔인물현대사〕(2003-2005), SBS의〔그것이 알고 싶다〕(1992~)는 방송민주화 이후 등장한 한국의 대표적인 시사 다큐멘터리로 과거사의 잘못된 역사를 되짚어보고, 청산하려 했다.

## 5. 나가며

1980년대 이후 200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텔레비전 방송은 기술적으로는 컬러화와 디지털화, 제도적으로는 방송통폐합에 의해 KBS와 MBC만이 존재했던 방송구조로부터 1987년 정치적 민주화에 따라 방송매체의 증가와 채널의 증가로 변모되어 왔다. 이로써 현재의 텔레비전 방송은 시청자들이 양질의 다양한 방송프로그램들을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1980년대 이후 텔레비전 방송의 크고 작은 변화들이 결코 대한민국 현대사의 흐름과 동떨어진 채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텔레비전 방송과 현대사가 서로 얽혔던 ‘현대사의 장면’ 속에는 권위주의적인 정치권력과 이에 저항했던 일반 시민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과 시청자의 틈바구니 속에서 거대기업으로 성장한 방송사가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텔레비전 방송은 자본주의적 산업화의 흐름 속에서 또다른 현재진행형의 변모를 준비하고 있다.

- 손호철(1993).「전환기의 한국정치」. 창작과비평사. 77쪽.
- 임영태(1998).「대한민국 50년사 2: 유신정부에서 국민의 정부 탄생까지」. 들녘. 141쪽.
- 한국사회언론연구회(1989).「1980년대 한국사회와 지배구조」. 풀빛. 176쪽
- 최창봉·강현두(2001).「우리 방송 100년」. 현암사. 257~263쪽.
- 김해식(1994).「한국 언론의 사회학」. 나남. 158쪽.
- 김해식. 앞의 책, 159쪽.
- 중앙일보·동양방송 시사편집위원회(1985).「중앙일보二十年史, 附동양방송十七年史」. 중앙일보·동양방송 시사편집위원회. 992쪽.
- 조항제 편(2002).「방송사 사료집」. 방송위원회. 373~380쪽.
- 조항제·윤상길·윤호진·이남표(2012). 공영방송 40년, 법제 변화에 관한 국면사적 연구.「한국언론학보」, 89쪽.
- 조항제·윤상길·윤호진·이남표. 앞의 글, 94~95쪽.
- 조항제·윤상길·윤호진·이남표. 앞의 글, 95쪽.
- 조항제·윤상길·윤호진·이남표. 앞의 글, 103쪽.
- 윤상길(2011). 한국 텔레비전방송기술의 사회문화사. 한국방송학회 편, 「한국 텔레비전 방송 50년」, (66쪽).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호정(2010).「한국 TV수상기 산업의 초기 형성과 정부정책: 1970~70년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학위 논문. 109~113쪽.
- 정순일(1991).「한국방송의 어제와 오늘: 체험적 방송현대사」. 나남. 245쪽.
- 윤상길. 앞의 글, 70~71쪽.
- 임종수(2007). 텔레비전의 사회문화사. 유선영 외 편,「한국의 미디어사회문화사」(450쪽). 한국언론재단.
- 윤상길. 앞의 글, 80쪽.
- 최창섭(1985).「방송원론」. 나남. 212쪽.
- 송재극·최순룡(1991). 한국방송기술사. 방송문화진흥회 편, 「한국방송총람」(1411~1412쪽). 나남.
- 한국방송공사(1987).「KBS방송연지 1987」. 한국방송공사. 201쪽.
- 유태영·김영수(1988).「교육방송론」. 나남. 22~23쪽.
- 윤상길. 앞의 글, 69~70쪽.
- 임종수(2011). KBS프로그램의 역사: 국가만들기 양식.「방송문화연구」, 23권 1호, 127쪽.
- 한국방송공사(1984).「KBS방송연지 1984」. 한국방송공사. 33~34쪽.
- 한국방송공사. 앞의 책, 40쪽.
- 한국방송공사. 앞의 책, 47쪽.
- 박승관·강현두·조항제·박용규(1996). 해방50년: 한국언론과 사회변화.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8권 1호. 213쪽.
- 한국방송공사(1987). 앞의 책, 683쪽.
- 한국언론연구원(1981).「한국신문방송연감 1981」. 한국언론연구원. 309쪽.
- 조항제·윤상길·윤호진·이남표. 앞의 글, 85쪽.
- 채백(2005).「한국 언론 수용자 운동사」. 한나래. 245~248쪽.
- 강동순(2006).「KBS와 권력」. 서교출판사. 55~57쪽.
- 「동아일보」. 1986. 4. 5.
- 조항제·윤상길·윤호진·이남표. 앞의 글, 85쪽.
- 강명구·한장록(1988). 한국 언론노조의 생성과 전개: 노사협약서에 나타난 편집권 등을 중심으로.「신문과 방송」, 6쪽.